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6년 포어 §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
(고후 5:18-21, 창 33:1-4)

十 행동 지침十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되는 교회
- 2.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seoulchurch.or.kr



성경적 죄의 정의

(약 4:17)

The Definition of Biblical Sin

(James 4:17)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이 죄의 능동적인 면이라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은 죄의 수동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죄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더 무거운 죄가 있고, 비교적 가벼운 죄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모든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약에서는 죄를 가리키는 단어가 차타, 라, 파샤, 사가고, 아삼, 라샤, 타흐 등 8가지가 나오는데 궁극적으로 죄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아닌 것은 모두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는 히말티아, 카코스, 아세베스, 폰네로스, 에노코스, 아디키아, 아노모스, 파라바테스, 아그노에인, 플라나오, 파라프토마, 히포크리시스 등 12개의 단어가 죄라는 뜻으로 쓰여집니다. 이러한 단어를 통해 죄의 개념에 대해 몇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죄는 참으로 많은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존재하는 어떤 뚜렷한 기준을 어기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므로 악을 차마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차마 보지 못하시거늘"(합 1:13).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하심과 정결하심으로 인해서 죄악을 차마 보지도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들은 어찌하든지 하려고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일들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우리에게 죄에 대한 참으로 난감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약 4:17).

1.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일은 모두 다 죄이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확신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취볼 때 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어떤 대세를 따라가거나, 어떤 흐름 가운데 편승하는 삶을 살아가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믿었던 그 믿음이 자기를 정죄하는 일로 귀결되지 않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롬 14:22). 신앙이란 나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내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2.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이다

악한 일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선을 행했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부자는 딱히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나사로를 자기 문 앞에서 쫓아내지도 않았고, 버려지는 음식 쓰레기를 뒤져서 먹지 못하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나사로에게 무관심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천국으로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는데, 부자는 지옥 불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부자는 적극적으로 나사로에게 선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선이 무엇인 줄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한 마음과 생명을 드리는 마음으로 철저히 순종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결의 능력으로 항상 승리하시는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If what we do what we are told not to do that is an active deed, what we don't do what God tells us to do that is a passive aspect of sins. In a word, sins are the refusal of God's orders. Though it is true that there are heavy sins and relatively light sins, regardless of heavy and light sins, the Bibles says, "The price of all sins is the death".

In the Old Testament, the words that refer to eight of them, chata, ra, pasha, sagag, asham, rasha, tach, etc, indicate that all sins are ultimately disobedience to God. Therefore, the way of which we do not listen to God becomes sin.

In the New Testament, the twelve of them, himaltia, cacos, asebes, poneros, enocos, adikia, anomos, parapates, agnoein, plana, paraptoma, hypocrisis, etc, are used with the meaning of sin. The fact that we should conclude a few things about the sin's conception through such words is that we can realize that the sins have many forms, and break a clear standard of existence.

"Your eyes are too pure to look on evil; you cannot tolerate wrong. Why then do you tolerate the treacherous? (Hab 1:13).

Owing to God's holiness and pureness, he cannot tolerate wrong. Therefore, we should do what God asks us to do in any way, and try not to do what He asks us not to do.

Nevertheless, God really declares a hopeless word about sins to us.

"If anyone, then, knows the good they ought to do and doesn't do it, it is sin for them " (James 4:17).

1. The thing that we don't do by following the faith is s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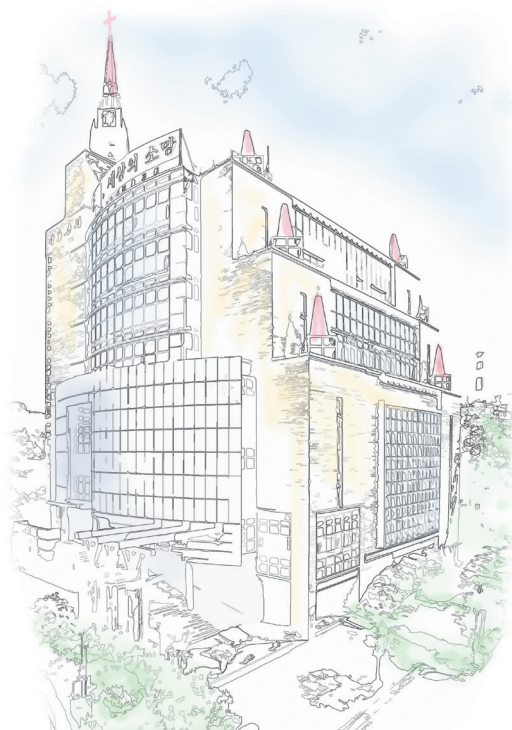
Whatever we do, before God we should do with self-conviction. The conviction that one has by oneself must be right with God's word. By following general tendency, or by going along the flowing of the world, it is said that we should not live our life. So the faith that I believe that I myself is right is that blessed is the one who does not condemn himself by what he approves (Rome 14:22). The faith indicates the relation between God and me. According to the leading of Spirit, what we realize the love and grace of Jesus Christ, rely on Jesus Christ, and live our life is a real faith.

2. If we know what is good and don't do it, it is sin

We should not think that because we did not take part in the evil work, we have done what is good. The rich man clearly did not do anything wrong. He did not let Lazaros turn away from his door and try to eat the food waste that was thrown away. He is only indifferent to him. Nevertheless, Lazaros entered the kingdom of heaven and was surrounded by Abraham's breast, but the rich man fell into the fire of hell. He did not positively do good for Lazaros. Therefore, the Bible says that if anyone knows the good they ought to do and doesn't do it, it is sin for them.

My beloved Christians,

By giving a humble mind and our life, by obeying God completely, and by having a victory inside of only Jesus Christ, I sincerely pray that you will be the blessed peopl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사이비 이단세력을 배격한다

20~40대 청장년들을 중심으로 『신천지 OUT』 운동 전개

신천지 이단의 포교활동은 올 초부터 3~4명의 무리들이 교회 주변에서 『CBS와 한기총의 해체 그리고 신천지의 교리에 대한 안내문』을 돌리며 포교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지난 7월 17일 주일에는 2부 예배 후 한티공원에서 50여명의 신천지 교도들이 서울교회 성도들에게 안내문을 나눠주는 일까지 일어났다.

이에 20~40대 젊은 청장년 집사들 중심으로 순찰 활동에 대한 기획과 지원자들을 모집하고 지난 7월 31일 주일에 총 25여 명의 장로, 권사, 집사, 그리고 청년 성도들이 자발적인 참여로 그 첫 순찰을 시작하였다.

『신천지 이단 포교활동 저지 순찰 활동』은 주일 1, 2, 3부 예배 후 교회를 중심으로 한티공원부터 은

마야파트 사거리까지 3~4명을 1개조로 신천지 이단의 포교 여부를 순찰하는 순찰조와 신천지 이단 교리의 문제점들에 대한 안내문 그리고 홍보물을 교회 출입문에서 나눠주는 홍보조로 나눠서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순찰활동을 통해 교회 전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신천지 이단 세력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더 나아가 교회의 화합과 장로교의 교리를 성도들에게 정확히 알려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 신천지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려는 성도들의 자발적 움직임에 더 많은 성도 여러분의 기도, 격려와 협력 부탁드립니다.



하반기 다락방리더수련회

- * 일 시 : 8월 26일(금) 오전 10:30~12:00
- * 장 소 : 2층 본당
- * 대 상 : 다락방리더(다락방장, 부다락방장), 교구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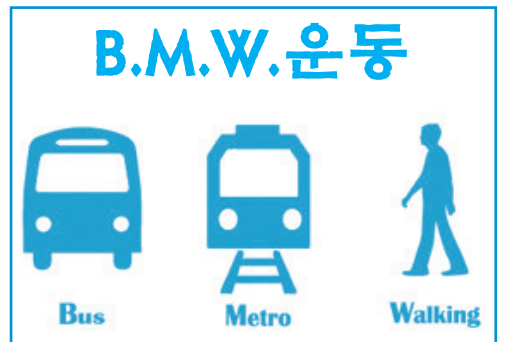
사무국 적재 물건 처리 안내

9월4일(주일)까지 찾아가도록

우리교회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1층 사무국에 성도들이 방치한 각종 물건들이 넘쳐나고 있다.

사무국은 성도들의 물건을 맡기는 장소가 아닌 사무실이다. 사무실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성도들이 방치한 각종 물건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9월4일(주일)까지 물건들을 찾아가기 바라며 이후에는 방치된 모든 물건들은 선별하여 일부는 지하 3층 나눔의 집에 보내고 나머지는 폐기 처분할 예정이다.



이중은 원로목사의 제자의 길

산 제사의 동기

인간으로 하여금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떤 동기가 주어져야 할까?

그 대답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하나는 도전을 받게 하는 것이다. 나폴레옹은 인간이란 하찮은 것으로도 감동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군인들의 가슴에 훈장을 달아 주어 목숨까지 바치게 했다. 처칠은 제2차 대전의 와중에서 영국인들에게 승리의 비전을 보여주는 위대한 연설을 통해 영국인들을 움직였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동기로 움직이는가?

1.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롬 12:1).

우리는 왜 하나님께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바쳐야 할까? 라고 묻는다면 무엇이라 대답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되시기 때문에, 또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 되시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말을 할 만큼 합리적이지 못하다.

바울은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바치게 된 동기를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라고 한다. 바울은 우리에게 로마서 12:1을 통해 많은 것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므로’ 라는 말로 로마서 1장-11장에 나타난 모든 교리를 회상케 하고, 죽는 것이 사는 것이라는 희생의 원리를 가르치고 또한 희생의 성격에 규명해 주었다. 그 제물은 산 것이어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우리 몸의 지체들을 바쳐야 하고 거룩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이다.

그리고 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바쳐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자

비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나오는 자비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바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자비 때문이다.

2. 자비란 무엇인가

자비라는 말은 흔히 선하심과 은혜와 함께 나온다. 선하심이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말할 때 사용된다. 하나님의 피조물, 율법, 섭리가 그런 것이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사랑을 받는 것을 말한다.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 것과 같은 것을 ‘일반은총’이라고 한다. 반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은총은 ‘특수은총’이라고 한다.

자비는 은혜의 한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특별히 말하는 것은 자비는 불행에 빠져 소망이 없는 이가 사랑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은혜가 사랑 받을 수 없는 이가 사랑을 받는 것이라면 자비는 타락하여 비천해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비는 죄를 전제로 하고 있다.

(다음 주 계속)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잠 16:9)

존경하는 이종윤원로목사님과 박노철담임목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서울교회 러시아기도팀과 성도님들께 러시아에서 문안드립니다. 선교의 상황은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으나 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덕분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저희들은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곳, 갈 수도 없었던 곳에 교회를 개척하여 그 동안 목숨 걸고 7년을 오고가며 선교지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노브고로드로 들어와 정착했습니다.

요즘 비자상황이 어려워져 서향정 선교사가 협력 사역하던 국제학교를 그만두면 어떻게 할까 고민했던 서선교사의 비자문제도 노브고로드대학교로부터 아무 문제없이 비자를 받게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했던 것에 대한 보상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명의 주님의 제자를 양육하는데 정말 힘이 들지만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보일 때마다 새로운 힘을 얻고 기쁨으로 일하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해 나가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그 간의 선교상황을 보고 드립니다.

1. 예배

처음 교회개척을 계획한대로 고려인 중심의 교회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청년 대학생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세례받기도 만나오는 사람도 있고, 가끔씩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항상 예배를 드리니까 매주 주일성수하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두가 초신자이고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가르쳐 양육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이제는 조직이 갖추어진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늘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2. 선교센터 준비현황

러시아 경제상황이 변하여 노브고로드 도시내에서 교회로 사용할만한 적당한 건물을 마련해 보려고 지금까지 찾아보았으나 현재의 재정으로는 도시내에서 도저히 마련할수 없어 도시를 벗어난 지역을 다시 둘러보고 있습니다. 현재의 재정대로 아파

트를 살수도 없고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인지 저희들 또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외국인 선교활동과 관련한 새로운 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대통령의 서명을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대통령의 서명이 되면 정식 종교기관의 초청자가 아니면 선교활동이 불가능하고 40일 안에 검열하여 그 초청장이 없으면 추방한다는 것과 선교사 뿐만 아니라 러시아 현지인 개신교회도 종교기관 건물로 등록되지 않은 곳에서는 종교활동을 할 수 없다는 법입니다. 이 법안에 대통령이 서명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3. 한글학교와 노브고로드대학교 학원사역

2015-2016학기 한글학교와 노브고로드대학교 학원사역은 종강을 하고 방학을 하였습니다. 종강에 즈음하여 노브고로드대학교에서는 국제교류의 날 각국요리대회에 참여하여 한국음식문화를 알리고, 시립어린이도서관 한글학교에서는 문화행사로 김밥만들기를 통해 한국문화도 알리고 전도활동도 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 모두가 한국어교육을 통하여 전도되어 와서 성경공부를 하며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으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모두 복음도 받아들여 한국전문가와 주님의 일꾼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 기도 제목 *

1. 하나님의 뜻에 합한 선교센터가 마련되도록
2. 변경된 러시아 종교법에 대통령이 서명하지 않아 폐기되도록
3.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모두 복음도 받아

들이도록 (한글학교, 노브고로드대학교)

4. 이진영 성도의 믿음이 자라 교회의 일꾼이 되고, 야기 최윤솔도 건강하게 교회에서 잘 성장하도록
5. 성경공부를 통해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 지도록
6. 나스짜, 마샤, 따냐, 알료나, 이리나, 다니일의 믿음이 자라 주님의 일꾼이 되도록
7.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올라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마칠수 있도록
8. 시립 어린이도서관을 통하여 어린이들에게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 가족 기도제목 *

1. 막내 아들 민혁 : 12학년(고교과정)을 마친 민혁이가 하나님의 인도로 대학진로를 잘 선택하도록
2. 첫째 딸 예나 : 국립외교원시험(구 외무고시)1차를 합격하고 2차시험(논술)을 응시하여 발표를 기다리며 3차시험(영어토론 등)을 준비하고 있는데 잘 준비하도록

러시아에서
김영호 서향정 선교사 드림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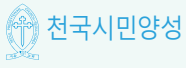


⑤



⑥

- ① 예배후 성도들과 함께
- ② 성경공부
- ③ 노브고로드대학교 국제교류의 날 (각국 요리대회 참가국과 한국대표 마샤와 비까)
- ④ 찬양팀
- ⑥ 한글학교 문화행사(김밥만들기)



노아의 방주와 하나님의 마음



아래 글은 지난 8월 11일(목) 경남 창원 양곡교회에서 개최된 아동부 전국연합회 주최 『제 26회 전국 어린이 대회』에서 글짓기 부문 은상을 수상한 유년부 송하영 어린이의 글이다.



송하영 (유년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 신기해요. 하나님의 역사중 하나가 노아의 방주이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홍수로 벌을 내리신 것 맞죠? 저는 그때의 하나님의 마음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정말로 화가 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내게로 돌아와라. 이렇게 열 번도 넘게 예기하셨는데도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심판하신 것 맞죠?

저는 어떨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신기하고 놀랍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은 크신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어떨 때는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와 짐승들과 노아의 가족들만 타게 하신 것 맞죠?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백성들이 비난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 것 맞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백성들이 비난했을 때 노아는 정말 마음이 안 좋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노아는 꼭 참았지요?

저는 노아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와 이 세상 사람들이 노아를 비난했던 사람들과 다른 게 없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느꼈어요. 그리고 저는 보잘 것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님은 저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느꼈어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죄 없는 하나님께 나아갈까? 이렇게 생

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진지하게 기도하여 대화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쳤지만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저는 저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요. 저는 가족을 미워하기도 했고 친한 사람하고만 노는 버릇이 있었어요. 하지만 크신 사랑의 하나님은 저를 용서해 주셨어요. 저는 하나님처럼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닮아 갈래요!!!

이제부터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송도 아주 아주 아주 열심히 부를게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하나님 많이 많이 많이 아주 많이 사랑할게요!!!

이제부터 하나님과 저와 친구사이가 되도록 노력하며 살아갈게요!!!!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송!하!영!이 되도록 노력하며 살아갈게요.

그리고 전도하며 살아가는 멋진 송!하!영!이 되도록 노력하며 살아갈게요!!!! 하나님 그리고 저는 하나님만 계시다면 부족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가족, 친구, 이 세상 사람들과 싸우지 않도록 노력하며 살아갈게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대화하면 화가 싹 풀리고 마음이 잔잔해지고 편안해져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과 기도하며 대화하지 않은 날은 막 이상하고 무서운 꿈도 꾸고 언니랑 막 싸우고 엄마에게 버릇없이 굴게 되요. 그날은 정말 최악의 날이라고 생각하게 되요.

하나님 저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아주 아주 많이 사랑해요.

전교인 성경 암송대회

예선 : 10월 9일 (주일)
본선 : 10월 14일 (금)
범위 : 히브리서 11장(믿음)
로마서 8장 (소망)
요한일서 4장 (사랑)



동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23일(화) 종교개혁500주년기념사업회 실행위원회를 소집한다. 25일(목) 미래한국포럼에 참여한다.

■ 독주회 : 4교구 김지영 귀국 바이올린 독주회(4교구 김재중 집사 김유경 권사 장녀) 8/24(수) 오후8시 금호아트홀

■ 승진 : 12교구 심상희 권사 천안용곡중학교 교장

■ 특남 : 15교구 우일환 집사 최현진 집사 (우상룡 집사 전미애 권사 장남 가정) 8월 16일

■ 주일식당봉사 : 바울선교회 (8. 21)
베드로선교회 (8. 28)

■ 금주의 식사제공 : 교회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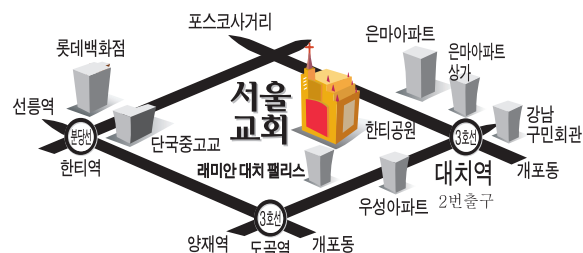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우리교회가 세계에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2. 8월 26일(금) 모이는 다락방 리더 수련회에 모든 다락방 리더들이 참석하여 큰 은혜 받고 개강하는 다락방 모임을 능력 있게 인도할 수 있도록
3. 8월 26일(금)-27일(토) 아가페타운에서 진행되는 영어예배부 여름수련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III, IV 층
	I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양예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젊은이예배	오후 2시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당 II, III 층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당 II 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